주목받고 있는 즉석커피음료시장

홍콩지사

홍콩의 인기 음료로 자리잡은 커피

- 전통적으로 차를 선호해왔던 홍콩에서 '커피'가 인기를 끌고 있다. 서구화되어가는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대형 커피체인점이 속속 들어서면서 커피 한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.
- 대중적인 식당인 차찬탱에서는 차와 커피를 섞어 마시는 '원앙차'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, 맛과 품질이 뛰어난 스페셜티 커피(Specialty Coffee)를 찾는 소비자 또한 늘고 있다.

홍콩에서 접할 수 있는 독특한 커피, 원앙차(鴛鴦茶)

편리함과 간편함 내세운 RTD 커피

- 커피의 맛과 향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홍콩소비자들 사이에서 커피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, 바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소비자를 겨냥한 RTD 커피가 주목 받고 있다.
- RTD(Ready-To-Drink) 커피란 구입한 뒤 개봉만 하면 바로 마실 수 있는 커피로, 완제품 형태의 커피가 캔·컵·병·파우치 등에 담겨 판매되며 휴대와 음용이 쉬운 것이 특징이다.
- 「유로모니터」에 따르면, 2017년 홍콩 RTD 커피 소매시장 규모는 3억 8,300만 홍콩달러(약 545억 5천만 원)로, 2021년까지 약 4억 340만 홍콩달러(약 574억 5천만 원)까지 커질 전망이다. 작년 RTD 커피 판매량은 1,800만 리터로 판매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.

퓨전·대용량으로 차별화

- 현재 홍콩에서는 아메리카노, 카페라떼 등 기본 제품군뿐만 아니라 캐러멜부터 초코, 녹차, 코코넛까지 다양한 맛과 향을 가미한 퓨전 RTD 커피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, 홍콩인들이 선호하는 차(茶)와의 블렌딩을 강조한 제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.
- 최근 들어 맛과 가성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이즈업(Size-Up) RTD 커피제품의 유통량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눈에 띈다.

홍콩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

1

2

3

1. 대형슈퍼마켓에서 판매 중인 수입제품들
2. 네슬레가 출시한 대용량 커피제품
3. 세븐일레븐에서 출시한 PB브랜드 제품

홍콩 RTD 커피시장의 주요 브랜드

- 현재 홍콩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는 캐나다, 일본 등 다양한 수입산 RTD 커피가 판매되고 있다. 글로벌 커피 제조업체인 네슬레(Nestle Hong Kong Ltd)가 2017년 홍콩 RTD 커피소매시장에서 70%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달리고 있고, 미스터 브라운(Mr. Brown) 브랜드를 보유한 킹카푸드(King Car Food Industrial Ltd)가 약 15%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.
- 네슬레의 네스프레소(Nespreso)와 네스카페(Nescafe) 제품 역시 홍콩 RTD 커피시장에서 오랫동안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, 그 외 다양한 수입산 브랜드들 역시 독특한 패키지와 맛의 차별화를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 중이다.

소비자층 세분화와 제품차별화가 관건

- 인구밀도가 높고 생활리듬이 빠른 홍콩의 RTD 커피시장은 이미 수입브랜드 제품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층의 수요를 세분화해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.
- 예를들어, 홍콩사람들은 커피매장에서 판매하는 즉석 커피를 구매한 후 친구 또는 직장동료들과 야외에서 교감을 나누는 것을 선호하므로 이들을 타깃으로 한 홍보 마케팅도 효과적일 것이다.
- 세분화된 소비자층을 바탕으로 홍콩 소비자들의 RTD 커피선호도를 파악해 그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타깃마케팅을 진행한다면 홍콩 RTD 커피시장 진출이 좀 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.

출처 : www.maruko.tw, obaldenno.com, www.modelfactory.com.hk, www.tripadvisor.co.uk